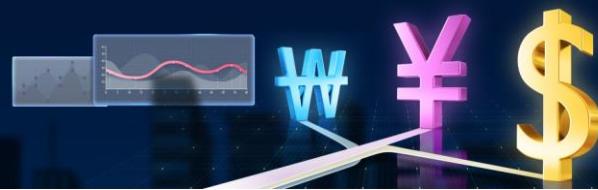


Eugene's FIICC Update (2023.2.1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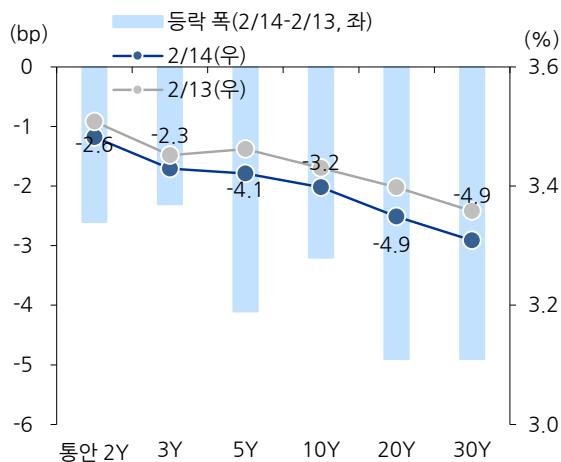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76 jhoonlee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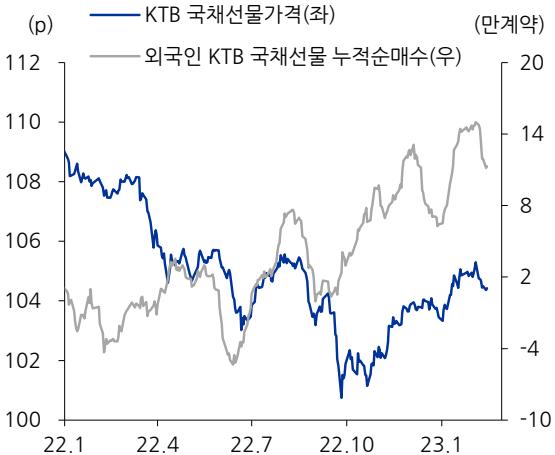
Fixed Income

		2/1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429%	-2.3	11.4	-29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98%	-3.2	10.1	-33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 bp)	-3.1	-2.2	-1.8	0.8
	3년 국채 선물(KTB)	104.42	6.0	-31.0	97
	10년 국채선물(LKTB)	113.25	27.0	-98.0	33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639%	10.2	17.2	21.9
	미국채 10년물	3.751%	4.8	7.6	-12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 bp)	-88.8	-83.3	-79.1	-54.2
	독일국채 10년물	2.435%	6.8	9.3	-13.0
	호주국채 10년물	3.741%	-1.9	14.4	-31.0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불 플래트닝 마감. 최근 약세에 따른 대기매수세 유입으로 되돌림 진행.
 - 미국 1월 CPI를 앞둔 불안 있으나 고용지표 발표 후 금리에 빠르게 반영됐다는 인식 하에 매수세 유입. 이미 1월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. 아시아 장에서 미국과 호주 금리도 유사한 이유로 강세를 보였던 것도 영향.
 - BOJ 신임 총재가 우에다 가즈오 전 BOJ 위원으로 지명됐으나 별다른 영향은 없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 1월 CPI 예상치 상회로 단기금리 위주 상승.
 - 물가 둔화세는 여전했지만 생각보다 그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하면서 연내 인하 기대감 모두 소멸하며 단기금리 상승.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며 시장 심리 위축.
 - 연이어 발표될 미국 소매판매 지표 주목할 필요. 고물 가에 이어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전환한다면 연준 긴축이 좀 더 강화 및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리 상승 이어질 수 있음.



FX & Commodity

		(단위: %, \$)			
		2/14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269.40	-0.6%	1.1%	0.4%
	달러지수	103.23	0.0%	-0.1%	-0.3%
	달러/유로	1.074	0.1%	0.1%	0.3%
	위안/달러(역외)	6.84	0.2%	0.8%	-1.2%
	엔/달러	133.05	0.6%	1.5%	1.4%
	달러/파운드	1.218	0.3%	1.1%	0.7%
	헤알/달러	5.19	0.4%	-0.3%	-1.9%
상품	WTI 근월물(\$)	79.06	-1.3%	2.5%	-1.5%
	금 현물(\$)	1,856.01	0.1%	-0.8%	1.8%
	구리 3개월물(\$)	8,946.50	0.1%	0.2%	6.9%

원달러 환율 및 홍콩증시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-7.90원 하락한 1,269.40원에 마감.
- 간밤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 및 소득 증가 전망치 둔화되면서 인플레 우려 다소 완화. 달러가 반락하면서 원달러도 하락 출발.
- 오전 장 후반 역외 중심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낙폭 확대. 한 때 전거래일 대비 -10.0원 가량 하락. 그러나 장 막판 하락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. CPI 대기 심리 속 낮은 변동성 보였으며 거래량도 제한적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CPI 결과 발표를 소화하며 흔조세.
- 미국 1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+0.5%, +0.4% (M)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. 그러나 전년동월비로는 각각 +6.4%, +5.6% (Y)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.
- 물가가 예상에는 부합했으나, 전월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은 없었음. 그러나 3월 FOMC 이전까지 한 번의 CPI 발표가 더 남아있는 점과 연준이 당초 전망(5.1%) 보다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는 인식에 시장은 흔조세.